

다니엘 39 강

다니엘서 10 장 10 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져 내 무릎과 손바닥으로 나를 세우고 내게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하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네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했을때 내가 떨며 일어섰더라. 그때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닫고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네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네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이십일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의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이제 내가 훗날들에 네 백성에게 닥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왔노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동안 남아 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그러한 말들을 했을때 나는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병어리처럼 되었더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똑바로 서야 됩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서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자게 되었죠? 진리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마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지식으로 그냥 갖고 있으라고 주신게 아닙니다. 그리고 진리를 실행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을때, 우리 찬송에서도 귀를 열어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들을때 깨달을 때에 내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픈 그러한 욕구가 막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은 귀로는 듣는데 잘 깨닫지는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세대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보다도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먹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길 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면서 너 가가지고 내 백성이 눈이 멀어서 못보게 하고 귀가 막혀서 못 듣게 하라 그랬어요. 대게 전도하러 갈 때 사용하는데 그건 그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잘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즐리기만 하고 말씀을 들어도 다 잊어 버립니다. 들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난 사람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세상을 빛으로 인도합니다. 왜냐면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빛이 비추게 해가지고 못떠들게 해야 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못떠들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런 사람을 책망하는 메세지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하는게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진리가 나올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우리가 수호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받은 사람은 견딜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소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똑바로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주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내가 네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여기 내가 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님이십니다. 앞에서 다니엘이 주님의 영광 앞에서 몸을 가눌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쪽 뺏어 있었어요. 주님입니다. 세마포로 옷입고 우바스 정금으로 허리를 둘렀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되었죠? 주님이 그때부터 사람으로 나타났죠? 영으로 나타나면 아무도 못보잖아요. 창세기 18 장에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두 천사와 함께. 그 두천사는 소돔을 심판하러 가는 두 천사고 그 두 천사들이 소돔으로 향하니까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그랬어요. 세 사람인데 그 중의 한 사람이 예수님이예요.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났다 말예요. 요한계시록 1 장 13 절에도 주님을 만나게 나오잖아요. 요한도 옆드려져 가지고 두려워 벌벌벌 떨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여기 보면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알지만 이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천사 그러면 무슨 메세지만 전하는 줄 알아요. 가브리엘은 그런 천사예요. 그러나 미카엘 같은 천사는 군대 장관이예요. 전투하는 군대장관이예요. 이걸 잘알아야 돼요.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3 장 2 절에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주의 천사라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름이 뭐예요? 물으니까 **I'm that I am.** 나는 나야 그랬어요. 개역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직역하면 나는 나다. **I am.** 이에요. 어떻게 천사가 하나님처럼 나는 나다. 그러겠어요? 이걸 뭔가하면, 이 천사는, 메세지를 전하는 것은 일부가 하는거고 대부분의 천사들은 뭘 하냐하면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나타나는 거예요. 현현(顯現)하는 거라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신하가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사약을 내렸어요. 그러면 부하를 보내요. 천사같은 부하를 보낸단 말예요. 부하를 보내며 어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기에 왕이 온거와 똑같죠? 그 신하가 바로 왕의 현현이예요. 왕은 함부로 안나타나잖아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사약을 받아 먹습니다. 바로 천사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한 분이니까 주님이 나타났단 얘기란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예수님 까지도 주의 천사라고 하나님의 천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 장 14 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천사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천사다. 그리고 사도행전 27 장에서도 사도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배가 파손될 지경에 있었잖아요. 내가 속에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다. 사도바울 안에도 있고 사도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다.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천사,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사도바울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라고 했잖아요.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날 때 어려운 말로 하면 현현이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내게 이 말을 했을때 내가 떨며 일어섰더라. 벌벌 떨며 일어섰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떨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마음이 상한 자들. 이걸 단순히 떠는것,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를 두려워 하는게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죠?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내 죄가 드러나니까. 두렵다는것이 fear 에요. 무섭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경외하다로 되었죠? 경(敬)자를 존경(尊敬)하다로 고쳤는데 두려운것은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한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떨 때 두려워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말씀을 두려워 하지 않아요. 말씀이 좋다고 그래요. 아 good message 라 그래요. Good 메세지가 아니라 good 마싸지죠? 그렇게 얘길 한다고. 미국 사람들은 good sermon! 한국 사람들은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가 은혜를 주나요? 성경 말씀이 떨어지면 둘 중의 하나예요. 회개하거나 감사하거나.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메세지를 주는데 안떨고 사람이 얘기하니까 사람말을 듣고 아 저사람이 왜 나에게 저말을 해. 그러고 시험 든다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보이니까. 보이는 것은 주의 종밖에 안보이지않아요. 12 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닫고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네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네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계시록 1 장 17,18 절도 요한에게 나타난 주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 있는 자며.]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 첫날부터 기도가 이미 하나님께 들린 바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아직 나타나기 전까지 받은 줄로 알고 기다리라 그말이에요. 다니엘은 21 일 전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1 일이 지난 다음에 응답이 내려 온거죠. 그래서 네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네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 했죠. 즉각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는데 시간이 걸리게 문제가 있었다. 13 절 보니까 [그러나 페르시아의 왕국의 통치자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의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어떻게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가로막습니까? 그 통치자는 땅에 있는데 가브리엘이 내려 오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또 가브리엘은 주님 대신에 온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신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국의 통치자가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어떻게 21 일 동안이나 우리 주님을 막습니까? 감히 막습니까? 또 더 놀라운 것은 미카엘이 주님을 도우러 왔대요. 미카엘이 천사장 아닙니까? 최고 통치자중의 하나다. 아무리 그래도 주님이 힘이 없습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면 다 죽는데? 페르시아 통치자 정도면 너 죽어 하면 그냥 없어지는데. 바벨론도 없어졌고 앗시리아도 없어졌고 이집트,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도 없어졌고. 도대체 미카엘이 뭘 돕습니까? 전혀 이상할게 없죠? 세상도 왕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왕이 행차하는데 왕이 직접 싸웁니까? 부하들이 다 싸워서 왕이 가는 길을 열어 주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요. 또 주님께서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계셨다. 함께 뭘 하셨다는 얘기냐 이거죠? 미카엘이 싸우는 동안에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신 거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늘에 있는 통치가 이 땅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이다. 그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지금 이 세상의 왕국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모형입니다. 원래 정사와 권세는 하나님 것인데 마귀가 찬탈을 했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거죠.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마귀가 땅에 와가지고 땅의 왕들을 자기가 세우고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뭘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땅에서도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땅에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Thy kingdom come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다 속여가지고 이 땅에 대한 소망을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땅에서 고생을 안할려고 그래요. 여기서 내가 고생한 만큼 휴거됐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하는 통치권이 있는데 이걸 몰라요. 안가르치니까. 또 못가르치니까. 못깨달으니까 못가르치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다.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다. 이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주님이 내려 오시는데 막았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이나 앗시리아나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이 왜 망했느냐? 그건 우리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길을 막았잖아요? 내가 이제 가면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고 그를 폐위 시키고 이제 그리스가 나타날 것이다. 그대로 됐죠? 메데와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그리스가 나타났잖아요. 또 그리스가 망한 다음에 누가 나타났어요? 로마 시저가 나왔잖아요? 이게 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벨사살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기명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럴 때 결국 그날 주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저울로 재었더니 너는 떨어졌다. 그날로 죽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날 죽는 것도 모르고 다니엘에게 큰 상을 내렸잖아요. 허허. 그게 먼 훗날인지 알고.... 그날 죽었습니다.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요. 대부분 다 천사는 심부름만 하는 일꾼으로 아는데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겿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메세지 전했습니까? 힘을 돋구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주께 힘을 돌아 주더라 그랬어요. 힘을 돌아줬지 주님한테 메세지 전한게 아네요. 고뇌 속에서 기도할 때 힘을 돌아줬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이라는 것은 그냥 메세지만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전령이 와가지고 거기다 힘을 내라고 합니까? 전령은 그렇게 못해요. 메세지를 전하는 존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주의 천사는 결국은 힘을 돌아줬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돋궈 줍니다. 눈구덩이에서 기도하는데 호랑이를 보내 가지고 품어가지고 뜨뜻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해본

사람은 알 수가 없죠. 마태복음 4 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다 받은 다음에 승리하셨죠? 그러니까 마귀가 주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더라. 천사는, 자 보죠 히브리서 1 장 4 절 보면 **[그는 이처럼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셔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고 하신 적이 있느냐?”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으며 또 그 천사들에 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14 절 보면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우리들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섬깁니다. 때로는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나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천사로 사용될 수 있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섬기잖아요. 서로 섬기면 하나님의 천사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이걸 몰라서 그렇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요즘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지식이 없어 가지고 상을 다 놓쳐요. 상을 놓칠 정도만 되면 괜찮은데 상을 또 뺏겨요. 이걸 몰라서 그래. 말씀 공부를 안하니깐.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교회와서 판단한단 말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요즘에 교회에 세상이 들어왔어요. 교회에 세상의 education 시스템이 들어 왔어요. 교회에 세상의 철학이 들어 왔어요. 세상의 변호사가 교회에서 변호사 하고요 세상의 권세자가 교회와서 또 권세자 노릇하고요. 아닙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천사가 능력이 있는지 말이죠. 히스기야왕 때 앗시리아 군대들이 18 만 5 천명이 둘러싸고 협박을 했죠? 그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오 우리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의 손에서 우릴 구해 주시어 땅의 모든 왕국들이 오직 주만이 우리 주 하나님이신것을 알게 하소서.]** 기도할 때 응답이 바로 떨어졌죠?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이 왔어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방어하여 그것을 구하리라.]**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니 18 만 5 천명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날 밤에 다 죽었습니다. 천사 한 명이 왔는데 18 만 5 천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9 장 35 절 보면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결국은 그들은 퇴각하고 말았죠. 이처럼 천사들은 메신저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등장할 때마다 그**

천사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나타남이다. Appearance 다. 하나님의 나타남. Appearance of God, appearance of Lord Jesus, 그러므로 천사는 하나님의 현현이다. 어떤 주의 천사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어떤 나타나심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시죠. 주의 천사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이다. 요한계시록 보면 일곱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교회에도 천사가 나타난다. 이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가 하늘에 있다는 얘깁니다. 일곱 교회의 나타남이다. 이것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8 장 10 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뵈고 있느니라.]** 어린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제자들이 못오게 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뵈고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어린 아이들은 약하잖아요. 고아들도 많잖아요. 버려진 아이들. 그 아이들 한사람 한사람을 대표하는 천사들이 하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들을 때리잖아요? Abuse, 그러면 천사가 아버지께 일러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헌법에 child abuse 라는 법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의 abuse(동물학대)까지 있잖아요. 짐승만 발로 차버려도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누가 신고하면. 그래서 abuse 라는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 있어서 어린아이들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되요. 저는 멕시코에 가면 아이들에게 꼭 그런 얘기해요. 이번에도 갔을때 아이들을 다 안수해 주고 왔는데 아이들에게 꼭 그런 얘기해요. 너희 천사가 하늘에 있단디. 아이들이 전부 인디오들, 꽤재재하고 신발도 못신고 형편이 어려운 애들이죠? 너희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다 응답돼. 걱정하지 말아. 꼭 그렇게 얘기하고 그 부모님한테 그래요 아이들 잘해주라고. 아이들의 천사가 당신들 잘못하면 다 일러 버린다고.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부모들이. 보이는 것들은 아이들이니까 내 새끼라고 함부로 대하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라 그랬죠? 자녀들의 화를 돋구지 말라 그랬죠? 왜? 그 자녀들의 천사들이 일러요. 이것 알아야 됩니다. 다리밑에 얼굴이 새까맣고 웃도 제대로 못입고 그런 거지라도 그들을 대표하는 천사가 하늘에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직접 설교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놀고 무슨 색칠이나 하고 그러면 안되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오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전하면 아이들 심령에 그냥 박히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때 다니엘서를 배웠거든요. 그때 배운 말씀이 아직도 있고 그때 선생님의 이름이 임원기 선생님이에요. 아직도 기억해요. 그게 언젠니까? 11살쯤이니까. 50년도 지났잖아요. 요즘 가끔 만난 사람들은 이름을 그냥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분 이름은 기억해요. 왜? 나에게 다니엘서를 가르쳐 주시고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대해서 가르쳐 줬거든요. 참 그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문종이에다 다 그려가지고 가르치셨어요. 그때 이런 project가 어딴습니까? 다 기억이 나요. 사도요한이 올라가가지고 금촛대를 봤죠? 거기 거니시는 주님도 봤고 일곱 별이 있는걸 봤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일곱 교회가 지금 이 지상에 있잖아요. 그런데 일곱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가 어딴어요? 하늘에 있어요. 일곱 교회가 잘못하죠? 천사가 금방 하나님께 고한다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는거죠. 이걸 아는 사람은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문제가 있고 시험이 들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 시험을 마귀가 하는데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듣겠습니까? 시험이 들면 사람이 가는것도 싫어하고 완전히 달라 집니다. 사단이 그런거죠. 기도밖에 못해요 우리는. 가서 얘기를 못한다고요. 시험들었을 때 심방가잖아요 오히려 더 시험들어요. 그때 한 말가지고 또 시험에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대표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을 대표하는 천사뿐만 아니라 지상의 왕국들이나 민족들,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천사도 있다는 얘기에요. 정사와 권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가 있죠? 미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미리 가보면 **[그때 미카엘이 일어 서더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네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죠.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고 말씀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수상이 있죠? 통치자는 누구니까? 미카엘입니다. 지상에서가 아니고 영적세계에서 활동하는 통치자가 바로 미카엘이다. 여기 또 13절에서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라는것 땅의 페르시아의 통치자 고레스가 있었던 말예요. 하늘에도 있단 얘기죠?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와 싸우러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를 폐위시킬 때가 됐다. 그래서 그리스를 세우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을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함이라.]** 정사들이란 단어가 영어로 Principalities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앞에 프린스라고 되었죠? 프린스라는 것은 통치자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세상의 통치자가 올 것이다. Prince of the world shall come 그랬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지상의 나라들이나 사람을 대표하는 통치자들이에요. 한국 있죠? 한국을 통치하는 정사가 있어요. 또 누가 대통령되는 것도 그가 세워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아무리 날뛰어도 안되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세웠지만 정사와 권세는 지금 누가 통치해요? 마귀가 통치해요. 주님이 오셔 가지고 왕국을 세워야지만 완전히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죠.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란 것은 지상의 페르시아를 영적으로 통치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요 이것은 마귀의 수하에서 지금 활약하는 정사들중의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사라는게 많이 있죠? 2백 몇십개 국이 있죠? 그만큼 정사의 통치자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함께 거기 있었노라 말씀하셨죠? 거기란 곳은 물론 지상을 말하는게 아녜요. 하늘을 얘기하죠. 공중을 얘기해요.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세계를 말하죠. 그래서 영적 세계의 왕들이다. 이렇게 얘길하죠. 바울은 이들을 두고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이렇게 얘길 하죠. 높은 곳들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얘길하고. 높은 곳들이 어딥니까? 하늘을 얘기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서 연결되가지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세계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무시로 수시로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않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21 일 동안을 기도하며 겸손하게 허리를 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한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말씀을 깨닫고 항상 기도에 힘쓰며 섬길 수 있는 일에 힘쓰도록 도와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들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김으로 천사들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안에 계신 사람마다 주의

천사가 되어서 어딜 가든지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달해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도울 수있는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고 마귀의 수하에 있는 자들을 꼬집어 내어서 그들의 혼들을 이겨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할 수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 주님과 함께 이땅에 내려올때 아버지 하나님 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감당하고 천사들까지도 심판하는 일을 감당하는 남종들과 여종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